

우리의 대표브랜드-삼성

정신을 원하고 더 높은 욕망은  
강원도 금강산, 4대사에  
미용사님들은 그보다 더 나은  
미용사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



성아름에 찾아온 선별 | 025

해피투게더 • ② 새날에 찾아온 선물

# “사시사철 물질에 열두마디 안쭈시는 데가 없지라.”

청정해안으로 유명한 금강도의 해녀들은 쉬는 날 없이 하루종일 바다 밑에서 전복과 다시미를 따냅니다.

그래서 만성적인 근육통과 관절염을 달고 살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 늘 고생이었습니다. 게다가 행여 응급환자라도 생기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전 물리치료실은 물론 찜질방, 노인장까지 함께 딸린 보건진료소가 생기면서 이곳 주민들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. 이제 주민들은 수시로 보건진료소를 찾아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방에서 피로도 풀며 고대했던 하루를 위로받습니다. 30여 년간 물살을 헤 온 강영미씨는 “우짜스캐잉, 김나게 좋구먼”이라며 구수한 남도사투리 끝에 건강한 웃음을 쏟아 냈습니다. 구릿빛으로 검게 그을린 강영미씨의 얼굴에 언제까지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.



▲ 삼성이 세운 원도군 금강도 보건진료소 삼성은 행복봉사단, 동아를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전국 40여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

함께 가요, 희망으로!



해피투게더는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큰 희망을 가지게 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. 희망리포터의 문은혜가 그 아름다운 현장을 찾아갑니다.